

# 도의원·행정가 등 7명 출마... 민주-평화당-무소속 3파전

## 영암군수

재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동평(57) 현 군수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동평 군수와 김연일(55) 전남도의회원이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양자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에서는 김원배(63) 영암발전연구소장, 김철호(67) 영암군의원, 박소영(62)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최영열(54)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시종면 출신인 박성호(57) 한국지방자치전략연구원 대표가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히고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영암군수 선거는 당내 경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민주당과 민평당, 무소속 등 3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 나서는 전 군수는 4선 도의원에서 탄탄한 조직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민선 6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군정 최대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대동령상 등 복지분야 평가 20관왕 달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 행복지수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병정 시설 유지와 무화과 산업특구지정, 한국 트로트가



민주당 전동평·김연일 경선... 무소속 박성호 출마  
평화당 김원배·김철호·박소영·최영열 당내 경선

요센터 건립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전 군수에 맞서는 김 도의원도 배수진을 치고 경선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 군수의 민선 6기 행정을 집중 공격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전 군수가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선심성 시책에만 몰두했을 뿐 생산적인 복지는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김철호 군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군수 출마자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며 생활현장 방문 및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얻은 경험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박 전 국장은 목포시 관광기획과장, 부시장 직무대리 등 주요 요직을 지내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40년 공직 경험과, 강하지만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의 선거 출마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바뀐 경우 출마가 가능하겠지만, 원심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최 전 실장의 대법원 판결이 민평당 경선 판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연청 등에서 20년이 넘도록 정당활동을 해온 김원배 영암발전연구소장도 민평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김 소장은 "고향 영암 발전을 위해,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영암군수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 뜻을 밝힌 박 대표는 "고향을 떠나 수십년 동안 얻은 경영 경험과 철학, 지방자치전문가의 노하우로 고향발전에 헌신하겠다"면서 바다 민심을 높이고 있다.

/\*영암=전통통신기자 jbh@kwangju.co.kr

## 경선 과정 역선택 가능성 변수로

### 높은 당 지지율 VS 하부 조직력

### 민주-평화, 본선서도 경쟁 치열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현직 군수의 프리미엄과 높은 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민평당은 지방의원 등 하부 조직력이 여전히 견재할 것으로 알려져 본선에서도 정당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전동평 군수와 김연일 전남도의회원의 경합이 확실시되고 있고, 민평당에서도 2~3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 정당별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작용할 것이라는 게 지방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평당 경선에서 만만한 후보에 지지를 보내는 역선택을, 민평당 지지자들 또한 민주당 경선

에서 만만한 후보를 고를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도 역선택이 당락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전 군수는 "역 선택은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자금차별 압도적인 우세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반면, 김 도의원은 "어차피 당내 경선이 당원 뿐 아니라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평당에서는 최영열 전 전남도 민원실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경선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쟁력있던 후보로 알려졌던 최 전 실장이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지지세력이 어떤 후보로 쏠릴지 주목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영암=전통통신기자 jbh@kwangju.co.kr

# 민주당 후보 맞설 야당후보 없어... 싱거운 본선 될 듯

## 영광군수

영광군수 선거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다. 김준성(66) 현 군수와 3선의 이동권(57) 전남도의원 모두 민주당 후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 후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다만 무소속으로 박기열(65) 전 장성부군수가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성 군수에 맞서 이동권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 경선을 거쳐 통해 승자가 후보로 결정된다. 현재대로라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무투표 당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리턴매치를 기대했던 정기호 전 군수가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영광군수 선거는 조금 싱거워졌다.

김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동안 군수 재선을 위해 조직을 탄탄하게 꾸렸다.



민주당 김준성·이동권 경선...무소속 박기열 출마 타진  
리턴매치 기대했던 정기호 전 군수 출마 뜻 접어

그는 미래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광인프라 구축에 주력 했다.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영광굴비 산업 육성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다. 김 군수는 군민들과 친근하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편안한 군수, 서민 군수라는 평을 받고 있다. 3선의 이동권 도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저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출판기념회를 연다. 그는 이 책에서 30여년 정치적 활동과 12년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고민했던 내용

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 등 관록이 돋보인다. 30여년 정치인생 내내 민주당을 지켜온 정통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 행복한 영광, 다함께 잘사는 세상, 군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5대 목표로 ▲군민이 주인인 군정 ▲다함께 잘사는 경제 ▲내 삶이 달라지는 복지 ▲품격있는 교육 문화관광도시 건설 ▲농업인 소득 증대를 공약했다.

무소속 출마를 타진 중인 박기열 전 부군수는 1974년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이다. 이후 전남도청에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분과위원장, 여수바람회지원관, 장성부군수를 지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강점이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사진은 현직·정당·무소속·가다다 順

## 민주 후보들만 뛰어... 공천=당선 가능성

### 쟁점 없어 차분한 분위기

영광지역은 선거 분위기가 차분하다. 쟁점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할 정도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뛰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 후보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받아들여진다.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용력과 흡입력이 좋은 김준성 군수가 조직력과 인지도 면에서 이동권 전남도 의원을 앞선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광읍을 중심으로 한 1선거구에서는 김 군수에 비해 인지도가 뒤지지 않지만, 2선거구에서 다소 밀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이계호 국회의

원 당선에 공헌함으로써, 이 의원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지역 현안은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두 후보 모두 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낙후된 지역의 발전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보육 및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성장 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골목 산업이 아닌 4차 산업, 6차 산업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